

# 학교 운동장서 유해물질... 전면 통제

### 도내 60개 학교 우레탄트랙 등서 프탈레이트 검출 제주도교육청 100억 투입 올해 말까지 교체 추진

도내 60개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과 다목적 구장 탄성포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프탈레이트, 납)이 검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 운동장 탄성포장재는 교체시까지 사용이 전면 통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차 추경을 통해 교체 예산(약 100억원)이 확보되면 최대한 올해말까지 철거·교체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FITI 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에 의뢰해 탄성포장재(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등)가 조성된 도내 85개교(초 51개교, 중 16개교, 고 16개교, 특수 2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60개교(초 38, 중 9, 고 12, 특수 1)의 우레탄트랙과 다목적

구장 탄성포장재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59개교, 납 1개교)됐다고 26일 밝혔다. 모두 KS 개정 전(2016년 12월) 탄성포장재를 포설하거나 유해성 검사를 실시했던 학교다. 이와관련 도교육청은 2차 추경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교체 예산을 지원할 계획 등이 담긴 종합추진 대책을 마련했다. 초등학교→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순으로 교체될 학생수 및 운동장 개방 빈도를 고려해 교체 순위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늦어도 내년 1월까지 탄성포장재를 철거·교체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장은 지역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전면 통제 이유와 당위성 등을 충실히 알려 지역주민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라면서 “한국표준규격(KS)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전면 교체해 학생들이 안전한 운동장에서 체육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른기사자 eioh@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27일 금요일 음 7월 20일 (12물)

### 기상정보

### 구름 많음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주	10%
20%	성산	0%
60%	고산	10%
60%	서귀포	20%

### 주간예보

날씨	구름 많음	25/31°C
내일	구름 많음	25/31°C
모레	구름 많음	25/31°C

제주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5-26°C, 낮 최고기온은 28-33°C로 전망된다. 중산간 이상에는 낮은 구름대에 의해 갑자기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6:04	달뜨기 21:54
해짐 19:06	달짐 10:23
물때 만조 01:14	간조 07:59
13:37	20:06

식중독지수 + 경고 자외선지수 ☀ 매우 높음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 9
성산오일장	1, 6
중문향토오일장	3, 8
표선오일장	2, 7
대정오일장	1, 6

## 경술국치일 8월 29일 “조기를 계양합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술국치일인 오는 29일 조기(弔旗)를 계양해달라고 도민들에게 당부했다. 경술국치일은 1910년 8월 29일로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이다. 정부는 주권을 뺏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매년 8월29일에 조기를 계양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계양 시간은 관공서·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강재섭 제주자치도 총무과장은 “경술국치일 조기 계양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취지”라며 “조기 계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민기자 hasm@ihalla.com



푸른 하늘 아래서 풀 뜯는 조랑말들 계속되는 비날씨 끝에 맑은 하늘이 드러난 26일 제주시 제주마박물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조랑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 사라봉·남수각 급경사지 “도민 품으로”

### 정비사업 통해 붕괴위험지역 해제... 활용방안 모색

붕괴 위험이 있던 제주시 사라봉과 남수각2지구 급경사지가 도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3일부터 7월 20일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용역에서 ‘D등급(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으로 골착, 건축, 시설물 설치 등이 제한됐던 사라봉과 남수각 2급경사지가 ‘B등급(재해위험성이 없지만 주기적 관리 필요)’으로 상향됐다. 사라봉 급경사지의 경우 2014년 8

월 집중호우(107mm)로 서측 사면 표토가 유실, 낙석방지망 및 차랑 1대가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제주시는 2014년 10월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고시하고,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자해 녹생토(잔디 및 초화류 씨앗 뿌리기) 및 쏘일네일링(soil-nailing·토사나 암반에 보강재 삽입) 공법으로 약 4000㎡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남수각2지구의 경우도 2014년 10월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예산 25억 5000만원을 투입해 붕괴위험지역 2141㎡에 대한 정비작업을 벌였다. 다만 B등급 유지를 위해 사라봉의

경우 ‘지하수 수위 상승 우려에 따른 계측관리’, 남수각2지구는 ‘상부사면에 인접한 건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붕괴위험지역 해제로 해당 지역에서의 골착과 건축행위, 시설물 설치가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라며 “다음달까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용역으로 제주시에 남아 있는 붕괴위험지역은 건입동 사정밭(2010년 12월 D등급 지정), 한경면 고산3지구(2014년 10월 D등급 지정) 등 두 곳이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렌터카 바다에 빠져 관광객 3명 자력 탈출

관광객이 몰던 렌터카가 출입이 금지된 해녀 작업로에 들어갔다 해 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3시 30분쯤 우도면 연평리 삼양동 해녀탈출장 인근 해안가 약 10m 앞 해상에서 승용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차에 타고 있던 20대 관광객 A씨와 동승자인 또 다른 관광객 2명은 다행히 스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했으며,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라봉 급경사지의 경우 2014년 8

**축**  
CONGRATULATIONS  
**취 득**  
제주대학교 문학박사

**박진향**  
제주대학교 국제교류본부 강사  
(남편: 조성두 · 부: 박규현 · 모: 강인숙)

긴 시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영예로운 ‘박사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더 큰 발전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형제가족 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국제로타리 ‘초아의 봉사상’

**황금신**  
회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황금어가 대표 본회 황씨청년회 부회장

국제로타리 2020-21년도 ‘초아의 봉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씨 제주도종친 청년회**  
회장 황용석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태권도경영연구회 회장

**박상언**  
(코리아태권도 2관)

제주태권도경영연구회 제11대 회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코리아본관 고철진 조천태권도 이창현 신광태권도 김승현 대 명 1 관 김경훈 코리아1관 문영수 강무태권도 이순현 코리아2관 박상언 오즈 석사 김미라 서부 1관 양윤우 오즈 1 관 김영현 오즈 2 관 김영원 오즈 3 관 신수호 코리아3관 고중희 명 예 회 원 김기형, 김현남, 한상진, 양수봉, 이영필, 최양범

**제주태권도경영연구회**

**축**  
CONGRATULATIONS  
**취 득**  
동양철학 박사 학위

**윤해인**

동양철학 박사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도초·중학교 3924 동창일동**